

# 콜마그룹, 분쟁 속 계열사 재편… 콜마비엔에치 체질 개선

건기식 실적 부진 속 쇄신 추진  
윤상현 부회장, 이사회 재구성  
윤여원, 주총 저지 법적 대응  
이달 임시 주총서 주도권 대결

콜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남매 갈등에서 오너 1세와 2세의 충돌로 커진 가운데, 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본격적인 계열사 재정비를 예고했다.

콜마홀딩스는 건강기능식품 위탁개발생산(ODM) 기업인 콜마비엔에이치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엔에이치의 부진한 실적 개선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재정비의 신호탄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윤 부회장의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콜마홀딩스는 생명과학분야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를 모색해 그룹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 HK이노엔 등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그룹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데 비해 콜마비엔에이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판단이다.

기존 한국콜마, HK이노엔, 콜마비엔에이치는 각각 화장품, 의약품, 건강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부터)과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는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장남·장녀로, 윤상현 부회장은 윤여원 대표의 오빠다.



기능식품 등에서 핵심 역량을 집중하며 그룹의 3대 성장축 역할을 해 왔다. 다만 콜마비엔에이치만 고전을 겪고 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24년 연결 기준, 전년 대비 6.2% 증가한 61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302억원에서 2024년 246억원으로 19%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매출은 1849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108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5%, 영업이익은 14.9% 감소했다.

실적뿐 아니라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콜마비엔에이치 시가총액은 2020년 8월 2조1242억원에서 2025년 6월 4259억원으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7만 원대에 달했던 주가도 1만원대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비엔에이치 주력 사업 재편과 함께 경영 정상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가 본연의 사업에 소홀했다는 점을 짚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24년부터 윤여원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이사회에 복귀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한 바 있다. 2024년 전체 매출에서 건강기능식품 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8%이며, 화장품 사업 42.4%, 기타 사업 2.8% 순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중 ‘콜마생 활건강’은 콜마비엔에이치의 화장품 및 일반식품 도소매 자회사로, 윤여원 대표가 독단 추진했던 사업이다. 콜마생 활건강은 최근 5년간 매년 적자가 이어졌고 누적 적자 규모는 100억원을 넘겼다.

또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엔에이치의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자회사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부당 인력을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항도 문제 삼았다. 그룹 내 관계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로,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위험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케이비랩은 윤여원 대표가 100%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회사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지난 4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 재구성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후 윤동한 회장은 ‘남매 경영’을 강조하며 화장품·제약 부문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장녀 윤여원 대표가 맡고 있는 현 체제를 강조했다. 윤동한·윤상현 부자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윤동한 회장은 장녀 윤여원 대표의 ‘독립 경영’을 공개 지지하며 갈등이 심화됐고,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윤상현 부회장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한 윤여원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되며, 추후 해당 임시 주총이 열릴 경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각각 콜마비엔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진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 ‘인삼 클래스’ 개설

### 뷰티과학 직접 체험

아모레퍼시픽은 서울북촌설화수의 집과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설화수 ‘인삼 클래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오감으로 느끼는 인삼 체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설화수가 60여 년간 이어온 인삼 연구를 소개한다. ‘인삼꽃향’ 시향, ‘DIY 향낭 및 인삼 입욕제’ 만들기 등을 통해 설화수가 지향하는 브랜드 가치관인 홀리스틱 뷰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인삼 입욕제 만들기 체험에서는 설화수가 독자 개발한 ‘뷰티 사포닌’ 성분과 브랜드 대표 성분 ‘자음단’을 활용해 자신만의 인삼 입욕제를 제작한다. 설화수는 다과 시간도 마련해, 체험 후에는 인삼 티와 한국 전통 티푸드를 제공한다.

설화수 관계자는 “이번 인삼 클래스는 브랜드 핵심 원료인 인삼의 효능을 피부로 느끼고 깊이 이해하는 자리”라며 “고객들이 설화수의 철학을 오감으로 향유하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화수 인삼 클래스는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 주사통증 낮춘 ‘오보덴스’… 골다공증 치료 선택넓혀

## 삼성바이오에피스-한미약품

프롤리아 대비 13% 저렴한 약가 강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한미약품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등의 치료제 ‘오보덴스’를 발매한다고 1일 밝혔다. 제품 생산 및 공급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담당하고, 마케팅 및 영업은 양사가 공동 진행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오보덴스는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의 바



‘오보덴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오시밀러다. 오보덴스 약가는 10만 8290원(60mg/1mL 기준)으로 급여 등재됐고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

13% 저렴한 수준이다. 오보덴스는 원내 보관이 간편하고, 29개이지의 얇은 주사 바늘로 설계해 주사 시 통증을 완화해 주는 등의 특징점을 갖췄다.

이와 관련 양사는 지난 5월에도 대한골대사학회 국제 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해 국내 의료진 및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제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알렸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오보덴스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사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최첨단

/이청하 기자

의 비교 분석법을 활용해 오보덴스의 구조적,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물질 특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국내영업총괄 이상현 상무는 “오보덴스 경쟁력은 합리적인 약가와 글로벌 규제 기관에서 인정받은 품질”이라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대체제가 아닌 국내 골다공증 환자 치료에 보다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P&G 다우니

### “장원영과 상쾌하게”

### 민트·플로럴향 선택

한국P&G는 섬유유연제·세탁세제 브랜드 다우니에서 신규 브랜드 모델로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발탁하고, 기존 브랜드 핵심 제품을 재단장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P&G에 따르면, 다우니는 긍정적이고 사랑스런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원영이 세탁 후의 상쾌함을 지향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다우니 실내건조 섬유유연제’의 향기를 총 3종으로 구성해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으로 자스민과 릴리의 잔향이 어우러진 ‘프레시 클린’, 장미, 체리, 피오니 등을 조합한 ‘플로럴 프레시’, 민트와 시트러스의 청량함에 화이트 플로럴과 머스크를 더한 ‘샴애타취 민트&시트러스’ 등을 출시한다.

또 다우니 섬유유연제 최초로 ‘햇빛 건조 프레시 효과’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실내 건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짙은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성분을 제거하고,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햇빛에 말린 듯한 상쾌함과 보송보송한 햇빛 향기가 지속된다.

/이청하 기자

## “하루 한 번 복용하는 당뇨병 복합제”

### 셀트리온제약

‘네시나메트서방정’ 국내 출시

셀트리온제약은 당뇨병치료제 ‘네시나메트서방정’을 국내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네시나메트서방정은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주성분인 ‘알로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을 복합 처방한 것이다.

제품 용량은 알로글립틴·메트포르민 성분 기준, 12.5mg·500mg, 12.5mg·1000mg, 25mg·1000mg 등 총 3가지다. 보건복지부 약제 상한금액 고시에 따라 보험약가는 12.5mg·500mg과 12.5mg·1000mg 제품이 503원, 25mg·

1000mg 제품이 758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제약은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네시나메트서방정은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서방형 제제로 설계해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기존 1회 이상 나눠 복용하는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하루 한 번만 복용하도록 개선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꾸준한 품목 확대와 제제 개선을 통해 확대되는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JW중외제약,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선택

‘타발리스정’ 약가 2만3천원대

식사 관계없이 복용 가능 신약

JW중외제약은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타발리스정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약가 고시에 따라 타발리스정 100mg의 약가는 2만3843원, 150mg의 약가는 2만9637원으로 책정됐다.

타발리스정은 경구용 혁신신약으로, 비장 티로신 인산화효소를 억제함으로써 대식세포에 의한 혈소판 파괴

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특히 타발리스정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다.

타발리스정은 미국 제약사 라이젤 파마슈티컬이 개발했으며 앞서 2018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일본 킷세이제약이 라이젤 파마슈티컬로부터 일본, 중국, 한국, 대만에서의 개발,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타발리스정 출시로 기존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